

비트겐슈타인은 왜 『논고』를 포기했는가?¹⁾

박정일(세종대)

【요약문】 비트겐슈타인이 왜 『논고』를 포기했느냐 하는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조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글의 일차적인 관심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한 개인의 실제 철학적 사유 과정보다는, 오히려 『논고』가 포기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과 경로를 생각하고 추적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논고』의 여러 근본 전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직접적 논박 가능성의 희박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논고』에서 정의에 해당되는 것, 모호한 개념인 "완전한 분석"과 관련된 것, 그리고 유아론과 관련된 것 등이 있다. 다른 한 부류는 전자에 비해 어떤 직접적인 논박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근본 전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소 명제들의 상호 독립성을 들 수 있다. 『논고』는 소위 "색깔배제 문제"로부터 후자에 속하는 근본전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했으며, 『논고』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 서게 됨으로써 비로소 포기되었다.

【주제어】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완전한 분석, 이름-연쇄적 분석, 요소명제, 색깔배제 문제

1. 들어가는 말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비트겐슈타인은 1929년 다시 철학을 하기 위해 캐임브리지로 복귀한 후, 젊은 시절 자신이 썼던 『논리철학논고』를 포기하였다. 철학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한 바로 그 책을 포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새로운 독창적인 철학을 『철학적 탐구』로 집약하였다. 사실상, 비트겐슈타인의 경우와 같이, 어떤 사상체계를 세우고 나서 이를 스스로 비판하고 포기한 다음 이와

1) 이 논문은 '제16회 한국철학자 대회 2003'에서 발표한 것을 약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특히 익명의 심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후기가 추가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논문이 쓰이는 과정에서 토론에 응해준 권병진, 배식한, 윤보석 선생님, 논평을 해주신 박병철 선생님, 그리고 두 분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제시한 것은 철학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왜 『논고』를 포기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일차적인 관심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한 개인의 실제 철학적 사유 과정에 있지 않다. 오히려 나는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즉, 비트겐슈타인이 『논고』를 포기했다면, 이제 우리는 『논고』가 포기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과 경로를 생각하고 추적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가 무슨 생각을 했으며, 실제로 『논고』를 포기하는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점은 이러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올바르게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관점이 제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과학 이론의 발전이나 변화에 대한 여러 과학철학자들의 논쟁을 목격하였다. 혹자는 철학 이론의 발전이나 변화 과정에 대해서, 과학철학자들의 생각을 적용하거나 또는 철학사에 초점을 맞춘, 완전히 새로운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논고』를 포기하고 다른 철학사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문의 “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그리고 나는 이 글에서 오해의 여지가 없는 한에서 그러한 관점을 이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고』의 포기 과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철학 이론의 발전이나 변화 기제---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물론 그러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이나 논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어떤 최소한의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는 다음의 물음으로 압축될 것이다: 한 이론 체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체계의 일관성(무모순성)이다. 특히 수학의 공리에 해당되는 근본 전제들이나 주장의 일관성과 유지 가능성이다. 따라서 근본 전제들이 모순을 유발한다거나 그 근본 전제들 하나 하나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 그 체계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반면에 그 체계를 이루는 개별적 논증에 어떤 오류가

있고 이 오류가 근본 전제들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것이 그 체계를 포기하게 하는 이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논고」라는 이론체계를 살펴보는 일이다. 나는 먼저 「논고」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 체계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2절) 그 다음에 나는 「논고」의 체계를 이루는 각각의 이론의 근본 전제들이 무엇인지(3절), 그리고 「논고」를 포기하게 될 가능한 경로가 무엇일지를 살펴보려 한다.(4절) 이러한 논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소위 “색깔배제 문제”에서 가장 명확하게 「논고」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다는 점이다.(5절)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왜 「논고」를 포기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컨대 색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요소 문제라고 보았는지, 또는 그 문제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았는지 하는 여부가 아니다. 오히려 도대체 그가 “요소 문제”라는 바로 그 개념을 포기했다는 점이며, “색깔배제 문제”가 그 개념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2. 「논고」의 부분 이론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논고」의 목적은 사고의 한계를 긋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 책의 전체적인 뜻은 대략 다음의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좌우 간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러므로 생각에 한계를 그으려 한다. 또는 차라리, 생각이 아니라 사고의 표현에 한계를 그으려 한다. 왜냐하면 생각에 한계를 그으려면 우리는 이 한계의 양 측면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따라서 우리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TLP, 머리말)²⁾

2) 이 글에서 「논리철학논고」에 대한 인용은 이영철 옮김, 「논리철학논고」, 천지, 1991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는 어떻게 그을 수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그러므로 한계는 오직 언어에서만 그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한계 건너편에 놓여 있는 것은 단순히 무의미가 될 것이다.”(TLP, 머리말) 즉, 그는 언어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작업을 함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그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경험상의 능력이나 사실을 뜻하지 않으며, 정확하게 말하면,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컨대, 우리는 “살인은 나쁘다”라는 윤리학적 명제를 발화할 수 있지만, 그 명제를 “유의미한 것”으로는 말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논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논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다:

(I) 말할 수 있는 것(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대답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이 문제 삼았던 것은 다음의 세 가지 물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II) 어떻게 명제는 뜻을 지닐 수 있는가?

(III) 왜 어떤 명제는 뜻 있는 명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뜻을 지니지 않는가?

(IV) 왜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가 아닌 명제들은 뜻을 지니지 않는가?
또한 이 명제들의 성격이 상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상이한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비트겐슈타인은 물음 I에 대답하기 위해서 “뜻이 있는(sinnvoll) 것”과 “뜻을 결여하는(sinnlos) 것”, 그리고 “무의미한(unsinnig) 것”을 구분하였다. 엉성하게 말하자면,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물음 II, III, IV가 대응된다. 그런데 『논고』에서 뜻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명제이다. 특히 비트겐슈타인이 간주하는 바,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연 과학의 명제들”(6.53)이다. 논리학의 명제들은 뜻을 결여하는 명제이

며, 윤리학과 미학의 명제들은 무의미한 명제이다. 이것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유의미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물음 II, III, IV에 대답하기 위해『논고』에서는 여러 주장과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다. 나는 먼저『논고』에서 어떤 일정한 주제들을 담고 있으며 또 어떤 일정한 물음들에 대답하기 위한 논의들을 간단히『논고』의 “부분 이론”이라고 부르겠다. 주지하는 바, 물음 II에 대한『논고』의 핵심 이론은 “그림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매우 단순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물음 II에 대답하기 위해서, 또 그림 이론이 제안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언어의 구문체계와 존재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림 이론이 말하는 것은 명제는 세계나 현실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먼저 “명제”가 무엇인지 대답되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언어의 구문체계에 대한 논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를 간단히 구문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논고』의 구문론에 따르면 언어는 명제들의 총체(4.001)이고,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5)이며, 요소 명제는 이름들의 연쇄(4.22)이다.

또한 “세계”와 “현실”, 더 나아가 “뜻”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이 필요하다.『논고』의 존재론에 따르면,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1, 2)이고,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2)이며, 사태는 대상들의 결합(2.01)이다.

구문론과 존재론이 제시되면 이제 비로소 그림이론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림 이론에 따르면, 명제는 현실이나 사실에 대한 그림으로서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는 논리적 그림이다. 명제가 그림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나 현실과 어떤 일정한 형식, 즉 논리적 형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들에 따라 물음 II에 대한 대답이 주어진다. 요컨대, 명제는 세계와 투영적 관계에 있는 명제기호(3.12)이고, 명제기호는 하나의 사실(3.14)이며, 오직 사실만이 뜻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3.142), 그리고 명제는 현실이나 사실과 논리적 형식을 공유하는 그림(2.18, 4.01, 4.021)이고 그림은 하나의 사실(2.141)이기 때문에 뜻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물음 표은 뜻이 있는 명제와 뜻을 결여하는 명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어떤 명제는 하나의 명제 기호이지만 뜻을 지니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떤 명제는 뜻 있는 명제 “비가 온다”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결여할 수 있다. 예컨대,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이다”는 날씨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참조: 4.461) 그리하여 동어반복이나 모순이 어떤 점에서 뜻 있는 명제와 유사한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뜻을 결여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논고』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소위 “진리함수 이론”이다. 진리함수 이론에 따르면, 동어반복이나 모순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라는 점에서 뜻 있는 명제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호 결합의 한계 경우로서 뜻을 지니지 않는다.(참조: 4.46 - 4.4666)

진리함수 이론은 한편으로 보면 언어의 구문론에 속한다. 즉, 이 이론에 따라 ~(아니다), &(그리고), ∨(또는), 등과 같은 논리상항(진리함수적 연결사)에 대한 형성규칙이 제공되며, 또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복합 명제들의 전체 영역이 확정되는 것이다. 반면에 진리함수 이론은 『논고』의 목적에 대해서는 물음 II가 아니라 물음 III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그림 이론과는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논고』의 실제 전개 과정에서는 진리함수 이론이 제시될 때 비로소 그림 이론이 완결된다. 왜냐하면 그림이론을 다를 때에는 불특정한 명제에 대한 언급만이 나오지만, 진리함수 이론에 가서야 비로소 요소 명제와 복합 명제간의 관계가 논의됨으로써 동어반복이나 모순을 제외한 모든 명제가 현실이나 사실의 그림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이다.³⁾

물음 (IV)가 겨냥하는 것은 무의미한 명제들이다. 『논고』에 따르면,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가 아닌 것들은 수학의 명제를 제외하면, 모두 무의

3) 그림 이론과 진리함수 이론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은 앤스컴과 이승종에 의해 제기되었다. 앤스컴은 두 이론이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Anscombe(1959), p.81) 그러나 이는 오류이다. 두 이론이 다루는 문제와 역할은 상이하다. 이승종은 두 이론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이승종(2002), 61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고』의 깊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오류에 불과하다.(참조: 박정일(2003a), 176-180쪽) 박병철은 두 이론이 완전히 독립인 것은 아니며, 후자가 전자의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Park, B.(1998), p.72) 그러나 이는 충분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논고』에서 두 이론이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미하다. 「논고」에서는 후반부에서 어떤 것들이 이러한 영역에 속하며, 또 왜 그것들이 그러한지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은 확률에 관한 이론, 자연과학의 법칙들에 관한 이론, 윤리학과 미학에 관한 이론, 철학에 관한 이론, 유아론에 관한 이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근본 전제들

우리는 앞에서 「논고」를 이루는 부분이론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고」는 요컨대 이 부분이론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각각의 부분이론들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말하자면 수학에서의 공리에 해당되는 전제들을 “근본 전제들” 또는 “근본 주장들”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되면, 「논고」의 포기 가능성은 첫째, 이 근본 전제들의 상호 모순 가능성과 논박 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제 그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논고」의 부분이론들의 근본 전제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부분이론들간의 관계를 논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모든 부분이론들을 열거해서 그 근본 전제들을 추려내는 것보다, 그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그 전제들을 추려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우리의 논의에서 「논고」의 궁극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비록 거짓이라고 판명된다 할지라도 「논고」를 포기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먼저 다음의 부분이론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구문론, 존재론, 그림 이론, 그리고 진리함수 이론이 그것이다. 이러한 부분이론들의 관계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비트겐슈타인이 각각의 부분이론에 어떻게 도달했으며, 이 때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이나 하는 물음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제 가령 다음과 같이 묻기로 하자: 비트겐슈타인은 “존재론”에 어떻게 도달했는가? 즉, 세계가 사실들의 총체이고,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이

며, 사태는 대상들의 결합이라는 것, 더 나아가 사태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2.062)을 그는 어떻게 알아내었는가?

사실상, 『논고』의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은 근본적으로 언어와 논리에 대한 철학적 반성에서 얻어진 귀결이었다. 이는 『논고』 이전에 쓰인 글에서도 확인된다.⁴⁾ 예컨대,

나의 작업은 논리학의 기초들로부터 세계의 본성들에로 확장되었다.(NB, p.79)

철학은 실재에 대한 어떤 그림들도 주지 않으며, 과학적 탐구들에 의해서 확증될 수도 없고 논박될 수도 없다. 그것은 논리학과 형이상학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전자가 그 기초이다.(NL, p.93)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반성은 일차적으로 구문론에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문론에서 특이한 것은 “요소 명제”와 “이름”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요소 명제와 이름이 존재해야 하는 그 근거가 『논고』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들을 이를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⁵⁾

요소 명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문제 삼아야 한다. 첫째,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요소 명제에 도달했는가? 둘째, 요소 명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셋째, 요소 명제의 본질적인 속성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두 번째 물음, 즉 요소 명제의 구성에 대한 물음은 이미 그 대답이 제시되었다. 즉 요소 명제는 “이름들의 연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 제기되는 물음은 “이름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둘째, 어떤 방식의 연쇄가 요소 명제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요소 명제의 구성과 관련된 물음은 다시 첫 번째 물음과 관련된다. 도대체 우리는 [복합]명제들로부터 요소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간단하다: 즉, 우리는 명제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완전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요소 명제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완전한 분석”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그것이 무

4) 『논고』에서는 2.0211, 2.0212, 3.23, 4.02, 4.021, 등에서 암시되고 있다.

5) 물론 『논고』에서는 “한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참고: 4.1272) 필자는 그저 편의상 대상이나 이름에 대해서 “존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우리는 실제로 요소 문제에 도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요소 문제가 어떤 방식의 “이름들의 연쇄”이며, 또 여기에서 “이름들”이 무엇인지도 대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완전한 분석”이란 무엇인가?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제 속에서 사고는 문제 기호의 요소들이 사고의 대상들과 대응하도록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TLP, 3.2)

이러한 요소들을 나는 “단순 기호들”이라고 부르고, 그 문제는 “완전히 분석되었다”고 부른다.(3.201)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분석”的 개념은 결코 명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위의 인용문에서 “사고의 대상들”이라는 말은 대단히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대상들”은 “이름들”과 대응하는 것이며, 사고는 어떤 궁극적인 요소들을 지녀야 할 것이다. 「논고」에서는 바로 이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⁶⁾ 둘째, 「논고」의 “완전한 분석”과 러셀의 기술이론에 따른 “분석”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느냐 하는 점은 대단히 불분명하다.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면 전자는 후자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복합체들에 관한 각각의 모든 진술은 그 복합체들의 구성 성분들에 관한 하나의 진술 및 그 복합체들을 완전히 기술하는 문제들로 분해된다.(TLP, 2.0201)⁷⁾

6) 이 점에 관해 러셀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 그러나 사고(Gedanke)는 사실(Tatsache)이다: 그것의 구성 요소들(constitutions)과 구성 성분들(components)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그림 그려진 사실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과 지니는 관계란 무엇인가?” 저는 무엇이 하나의 사고의 구성 요소들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언어의 단어들에 대응하는 그러한 구성 요소들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사고의 구성 요소들과 그림 그려진 사실의 구성 요소들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점은 무관합니다. 이를 발견해내는 것은 심리학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NB, p.129)

7) 이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로 제시되고 있다: $\Phi a \Phi b. aRb = \text{Def } \Phi[aRb]$. (NB, p.4) 이 정의에 따라 실제로 제시된 분석의 예는 「철학적 탐구」 60절에서 확인된다. 이 인용문에서의 “분해”的 개념은 러셀의 기술 이론과는 상이한 것이다. 왜냐하면, 러셀의 기술 이론에서는 확정기술구를 지니는 문제가 분석되면 그 결과는 존재양화사를 포함하게 되고, 복합체를 나타내는 확정기술구는 술어로 바뀌는데, 위의 정의는 전혀 그런 조작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기술이론과 뭔가 유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셋째, 비트겐슈타인이 “요소명제”나 “이름”에 대해서, 또 존재론에서의 그것들의 짹인 “사태”나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들은 “완전한 분석”을 통해서 도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분석”的 개념은 그런 예들이 주어지지 않은 만큼 모호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세 번째 측면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름은 대상을 대표한다. 그렇다면 『논고』에서 대상은 개별자인가 아니면 속성이나 관계도 포함하는 것인가? 당연하게도 혹자는 후자의 가능성을 배격할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기 1914-1916』(Notebooks 1914-1916)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우리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이는 것은 다음의 개념이다: 이 것.---이는 대상의 개념과 동일하다.
관계들과 속성들, 등은 또한 대상들이다.(NB, p.61)

만일 『논고』의 “대상”이 개별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다음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즉, “완전한 분석”에 따라 한 명제의 술어는 개별자를 가리키는 이름들로 분해될 수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모든 술어는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대체 이는 가능할까? 예컨대, “이 점은 빨갛다”라는 문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술어 “빨갛다”를 개별자를 가리키는 이름들로 환원할 수 있는가? 한 가지 제거 방법이 가능할지 모른다. 즉 술어 “빨갛다”를 만족하는 모든 대상들을 가리키는 이름들로 대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그 문장의 참-거짓을 결정하려면 빨간 모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우리가 현재 알지도 못하는 빨간 모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 도대체 “완전한 분석”은 그런 것들을 모두 찾아야 하는 경험적인 작업이 되어버릴 것이며, 결코 종결될 수 없는 작업이 되어버릴 것이다.

8) 참조: PG, p.211.

사실상, 비트겐슈타인은 『논고』 어디에서도, 그리고 다른 어떤 저작에서도, 그러한 술어 제거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는 『논고』에서 속성이나 관계를 “대상”으로 보았는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은 문제를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전혀 다른 방식의 분석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29년에 쓴 「논리적 형식에 관한 몇 가지 견해」(RLF: 이하, 「견해」로 약칭함)와 비엔나 학파와의 대화에서 “원자적 형식은 예견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주어-술어 명제와 관계 명제 등이 요소 명제의 형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RFL, p.30)에 불과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일”(WVC, p.42)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때에만 요소 명제들이 어떤 형식을 지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요소 명제들의 논리적 구조는 명제들의 논리적 구조와 어떤 유사성을 조금이라도 공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물리학의 방정식들의 구조가 대단히 복잡한 것처럼, “요소 명제들도 그 정도의 복잡성을 지닐 것”(WVC, p.42)이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원자 명제들[요소명제들]의 구조 안으로 수들이 들어가야 한다”(RFL, p.31)라고 주장한다.

비록 “완전한 분석”的 개념이 모호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논고』에서 요소 명제의 한 가지 구성상의 특징은 진리함수적 연결사(논리상향)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진리함수적 연결사를 지니지 않는 명제들에 대해 나아가게 하는 분석을 “진리함수적 분석”이라고 부르자. 그리하여 우리는 진리함수적 분석이 수행되면 그러한 연결사를 지니지 않는 명제와 만나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 명제가 반드시 “요소 명제”인 것은 아니다. 요소 명제의 다른 한 가지 구성상의 특징은 “직접적인 결합관계에 놓여 있는 이름들”(TLP, 4.221)의 연쇄라는 점이다. 즉 요소 명제에서는 대상들을 대표하는 이름들만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엄청난 복잡성을 지닐 수 있는 이러한 요소 명제에 도달하게 하는 분석을 “이름-연쇄적 분석”이라고 부르자.⁹⁾ 비트겐슈타인

9) 말콤이 언급하는 “두 종류의 논리적 분석”은 이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한 그는 “진리함수적 분석(truth-functional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p.110), “이름-연쇄적 분석”과 같은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참고: Malcolm(1986a), pp.103-116)

이 이 두 가지 분석의 개념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다음의 언급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주어진 명제들을 분석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이 더 단순한 명제들의 논리 합, 곱 또는 다른 진리 함수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은, 만일 충분히 수행되면, 그 자체로 더 단순한 명제 형식들로 이루어지지 않은 명제 형식들에 이르는 지점에 도달해야만 한다. 결국 우리는 항들의 궁극적인 연결에, 명제 형식 그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부수어질 수 없는 직접적인 연결에 도달해야만 한다. 이러한 항들의 궁극적인 연결을 표현하는 명제들을 나는 러셀을 따라 원자 명제들이라고 부른다.(RLF, p.29)

하나의 [복합]명제는 진리함수적 분석을 통해서 논리상항(진리함수적 연결사)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 때 『논고』에 따르면, 논리상항은 세계의 어떤 대상도 대표하지 않는다.(참조: 4.0312) 그리하여 그 [복합]명제는 그러한 논리상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세계와 말하자면, 간접적인 그림 관계에 놓인다. 그 [복합]명제를 이루는, 논리상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명제들은 보다 더 직접적인 그림 관계에 놓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명제들이 반드시 가장 직접적인 그림 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직접적인 결합관계에 놓여 있는 이름들”의 연쇄인 요소 명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명제를 “요소 명제의 축약 명제”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축약 명제는 이름-연쇄적 분석을 통해서 비로소 “요소 명제”가 된다. 예컨대, “이 점은 빨갛다”에 대해서 어떤 진리함수적 분석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이 명제는 “요소 명제”인가?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요소 명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요소 명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축약 명제이다. 실제 요소 명제는 엄청나게 복잡할 수도 있다.

『논고』에서 “완전한 분석”的 개념이 모호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름-연쇄적 분석”에 대해서 어떤 암시나 정보가 전혀 또는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다른 모든 개념들은 그 개념의 모호성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다. 그렇게 “요소 명제”, “이름”, 그리고 “연

쇄”는 모호하고, 다시 존재론에서의 짹인 “사태”, “대상”, 그리고 “배열”(또는 “결합”)도 그러하며, 더 나아가 요소 명제와 사태의 “논리적 형식”도 마찬가지로 모호하다.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이 요소 명제에 대해 부여했던 본질적 성격은 다소 분명하다. 그 본질적 속성이란 요소 명제들이 **상호 독립**이라는 것이다. 이는 물론 존재론에서는 사태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요소 명제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논고』 어디에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근거는 제시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만일 대상이나 이름에 대한 논의로부터, 또는 반대 방향에서 복합 명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요소 명제의 상호 독립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완전한 분석”的 개념과 관련된 것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이 개념이 모호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¹⁰⁾

그렇기 때문에, 요소 명제들의 상호 독립성은 하나의 요청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는 진리함수 이론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였다. 진리함수 이론에 따르면, 한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이고, 또 그 명제의 진리치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치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진리함수 이론에서 제시된 진리표에 따르면, n 개의 요소 명제가 포함된 (그 요소 명제들로부터 시작되는) 명제의 진리표는 2^n 개의 가로줄(또는 “요소명제들의 진리가능성들”)을 지닌다. 사실상, 『논고』의 진리표가 2^n 개의 가로줄을 지닌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요소 명제들의 상호 독립성이기 때문이다.

10)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희열(2003)은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한다. 그에 따르면, “단순성은 상호 독립성에 대한 충분조건이다. 따라서 원자 명제들이 단순하다면 그것들은 또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이희열(2003), 162쪽)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오류다. 『논고』에서 대상은 단순하다. 그리고 대상들간의 어떤 일정한 결합 가능성은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요소 명제가 “단순”하다면, 요소 명제들이 어떤 일정한 관계 속에 있을 가능성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단순성은 상호 독립성에 대한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이희열의 제안과 같이, 단순성이 상호 독립성에 대한 충분조건이라면, 요소 명제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전제를 포기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하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함축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서는 이 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논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논고』의 구문론의 근본 전제는 무엇보다도 완전한 분석과 요소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그리하여, 이름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과, 또 요소 명제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완전한 분석이 존재한다는 것과 요소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논고』에서는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분석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요소 명제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요소 명제가 존재한다면 이는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 즉 “완전한 분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존재론의 근본전제는 사태(그리하여 대상)가 존재한다는 것과 사태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론은 이 두 가지 이론과 더불어 성립한다. 특히 그림 이론의 근본 전제는 명제와 사실이 논리적 형식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리함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요소 명제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고』를 이루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근본 전제가 또 있다는 것은 지적되어야 한다. 이는 유아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비트겐슈타인의 중기 철학에서 “현상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만일 우리가 구문론, 의미론, 그리고 화용론의 틀에서 언어를 바라본다면, 앞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화용론이다. 화용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 사용자이다. 즉 우리가 앞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언어 주체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논고』의 언어 주체는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감각하고 지각하며, 사고하고 이해하며, 세계 속에서 일련의 경험을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언어 주체에 대해서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TLP, 5.62b)고 말한다.

사실상 『논고』는 “유아론”에 이르러서 총체적 반전을 겪는다. 세계가 나의 세계(5.62c)이고, 세계와 삶은 하나(5.621)이며,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존재론에서 논의되었던 세계는 우리의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하는 바의 세계라는 점이 판명된다. 요컨대, 세계나 사실은 물리적인 존재자가 아니라 차라리 현상론적인, 또는 현상학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바로 이러한 현상론적인, 또는 현상학적인 주장들을 떠받드는 일련의 전제들이 곧 『논고』의 근본적인 전제인 것이다.

이 전제는 “우리의 경험에(즉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우선성을 부여”¹¹⁾해야 한다는 것, 또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철학적 토대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예컨대 우리가 “사실들의 그림들을 만들어 낸다”(2.1)는 사실, 명제 기호를 가능한 상황에로 투영한다는 사실(3.1a), 명제의 뜻을 생각한다는 사실(3.1b) 등이 포함된다. 이제 나는 언어 주체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근본 전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논고』에서 한 명제는 항상 확정적인 뜻을 지닌다. 이 “명제의 뜻 확정성 논제”는 완전한 분석의 유일성과, 더 나아가 이름(즉 단순기호)의 가능성의 근거이다.

단순 기호들의 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뜻의 확정성에 대한 요구이다.(TLP, 3.23)

명제의 완전한 분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3.25)

명제는 그 표현하는 바를 일정한,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명제는 분절되어 있다.(3.251)

둘째, 어떤 “형식”의 확정요건으로서, 그리고 “의미”의 성립요건으로서 “사용”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호는 기호의 논리적 구문론적 사용과 더불어서만 비로소 어떤 한 논리적 형식을 확정한다”.(3.327) “어떤 한 기호가 쓰이지 않는다면, 그 기호는 의미를 상실해 있다. 이것이 오감의 격률이 지니는 뜻이다”.(3.328)

4. 근본 전제들의 논박 가능성

지금까지 우리는 『논고』의 몇몇 부분이론들의 근본 전제나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그 각각의 근본 전제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논박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먼저 『논고』의 논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논고』에서 제시된

11) 박병철(1998), p.19; 참조: 박정일(2003b), 162-165쪽.

“세계”와 “언어”가 매우 편협한 것이라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언어는 명제들의 총체, 다시 말해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들의 총체이다. 여기에 동어반복이나 모순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언어는 대단히 협소하다. 예컨대, 여기에는 의문문, 명령문, 기원문 등과 같은 문장들이 배제된다. 또한 평서문일지라도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가 아닌 것들, 예컨대 윤리학의 명제나 미학의 명제, 확률에 관한 명제, 역학의 어떤 법칙들을 나타내는 명제 등도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논고』의 세계도 대단히 협소한 것이다. 그 세계에는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적 행위나 미적 활동은 도대체 이 세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구나 의문문이나 명령문, 또는 윤리학의 명제를 말하는 행위는 도대체 무의미한 것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 세계 어디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없다. 세계는 그저 차가운 사실들의 총체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논고』에서 “사실들”은 모두 현재와 관련된 것이지 과거나 미래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¹²⁾ 따라서 언어에는 현재시제의 문장들만 포함될 뿐이며 과거시제나 미래시제의 문장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편협한 개념들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응수하게 될 것인가? **완고한** 비트겐슈타인이라면, 그는 비록 『논고』의 세계와 언어가 아무리 편협한 것일지라도 거기에서 논의된 것은 결정적인 진리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수하게 될 것이다. **유연한** 비트겐슈타인이라면, 그는 『논고』에서의 자신의 목적과 일차적 관심은 “사유의 한계”를 밝히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개념들은 그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이며, 만일 우리가 다른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논고』에서 제시된 여러 주요 개념들을 확장하거나 다소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논고』의 프로그램은 아직 완전하게 완결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확장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완고한 비트겐슈타인의 응수는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러한 협소한 개념에 대해서 논박하는 것은 어려울까? 그에게 “보라! 언

12) 『논고』의 1번 명제, 즉 “세계는 일어나는 일들의 총체이다”(Die Welt ist alles, was der Fall ist)에서, 일어나는 일(was der Fall ist)이 현재형임을 주목하라.

어에는 당신이 말하는 뜻 있는 명제뿐만 아니라, 의문문이나 명령문도 있다! 따라서 당신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왜 안 될까?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비트겐슈타인의 언급은 어떤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의”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과 우리는 “언어”라는 말을 달리 사용하고 있거나 달리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정의와 관련된 것은 비록 그 언급이 분명할지라도 논박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정의는『논고』의 일정한 목적 하에서 의도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관련된 근본적인 전제나 주장이 흔들리지 않는 한 고수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앞에서 “완전한 분석”的 개념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와 관련된 주장들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만큼 논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소 명제의 성립 근거, 요소 명제의 구성, 요소 명제를 이루는 이름들의 존재, 요소 명제를 이루기 위한 이름들의 결합 방식에 대한 언급들, 또 이것들과 관련된 존재론에서의 짹들, 그리고 논리적 형식에 관한 주장들은 한편으로는 “완전한 분석”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부터 물려받은 모호성으로 인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추구되고 달성되어야 할『논고』의 열린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 결정적 반박이 어렵게 될 것이다.

유아론과 관련된『논고』의 주장들과 이와 관련된 현상론적(또는 현상학적) 전제들은 아마도 우리의 논의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에 속할 것이다. 가령 유아론을 고수하는 사람에게 유아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라! 저 책상도 존재하고, 저 강아지도 존재하고, 저 사람도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곧바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가? 여전히 그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만이 확실하며 그 모든 예들은 자신의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강변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아론자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일상적인 것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유아론자에게 세계는 나의 세계이고 언어는 나의 언어이며, 저 책상은 나의 저 책상(또는, 나의 경험에 직접 주어진 저 책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저 강아지와 저 사

람을 식적해도 유아론자는 나의 저 강아지와 나의 저 사람을 거론할 것이며, 자신의 주장이 틀림없는 참이라고 계속해서 응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론과 관련된 언급들이나 주장들도 결정적인 논박이 어렵다. 이 점은 명제의 뜻 확정성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명제(예컨대, “이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다”)에 대해서, 그것의 뜻은 확정적이지 않으며 얼마든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할지라도, 유아론자는 “바로 나에게는 확정적이다”라고 응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은,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직접적인 논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논고』와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나 패러다임에 서게 될 때 비로소 비판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완전한 분석”的 개념이 모호한 것이고 특히 “완전한 분석의 유일성”은 충분한 근거를 결여한다는 비판적 자각과, 둘째 유아론자의 언어와 그에 따른 일련의 정의는 편협한 것이라는 반성이 그것이다.

그러한 모호한 개념들에 대한 비판은 그 개념들 자체가 모호하고 불완전하다는 바로 그 점을 보이는 테 있다. 실제로 스라파(P. Sraffa)는 “논리적 형식”에 대해서 바로 그 점을 비판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논리적 형식”的 개념은 “완전한 분석”이 모호한 만큼 모호하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어떤 사실이나 명제에 대해서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개념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실이나 명제에 대해서 그 논리적 형식을 거론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 그렇다면 손가락 끝으로 턱을 쓸어 올리는 동작의 논리적 형식은 무엇인가? 나폴리 사람에게 이 행위는 상대방을 경멸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렇다면 그 행위나 사실의 어떤 논리적 형식을 공유하고 있기에 “나는 당신을 경멸한다”라는 명제는 그런 뜻을 지니는가? 그러나 이러한 스라파의 비판은 완고한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여전히 결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완전한 분석”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존재한다면 말이다.

반면에 우리는 비록 “완전한 분석”이라는 모호한 개념과 유아론이라는 현상학적(또는 현상론적) 주장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분명한『논고』의 근본 전제를 확인하였다. 즉 요소 명제들이 상

호 독립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에서 우리는 이 근본 전제가 진리함수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논고』의 진리표는 n 개의 요소 명제를 다루는 경우 오직 2^n 개의 가로 줄(또는 “요소명제들의 진리가능성들”)만을 지닐 수 있었다. 따라서 2^n 개의 가로줄을 지니지 않는 진리표가 가능하다면, 이는 진리함수 이론뿐만 아니라, 요소 명제들(또는 사태들)의 상호 독립성이라는 『논고』의 근본 주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문제가 소위 “색깔배제 문제”이다.

5. 색깔배제 문제

색깔배제 문제란 간단히 말하면, 어떤 한 점이 동시에 두 가지 색깔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논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시야의 한 점 P에 대해서, 다음의 두 문장과 그 연언을 생각해 보자:

- | | |
|---------|----------------|
| (R) | P는 빨갛다. |
| (G) | P는 푸르다. |
| (R & G) | P는 빨갛고 P는 푸르다. |

그렇다면 R & G는 모순인가 아닌가?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그것이 모순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2개의 색이 동시에 시야 속의 한 장소에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게다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색의 논리적 구조에 의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
 (두 요소 명제의 논리적 꼽이 둥어 반복일 수도 모순일 수도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야 속의 한 점이 동시에 2개의 상이한 색을 가진다는 진술은 모순이다.) (TLP, 6.3751)

일반적으로, 한 명제 A가 명제들의 집합 X로부터 독립이라 함은 A와 ~A가 X로부터 어떤 추론규칙과 공리를 적용해도 추론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¹³⁾ 따라서 한 명제 A가 B로부터 독립이라 함은 A로부터 B와 ~B가 추론될 수 없다는 것, 또는 B로부터 A와 ~A가 추론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간단히 말해, 한 명제로부터 다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추론할 수 없는 경우 그 두 명제는 상호 독립이다. 『논고』에서의 “상호 독립성”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참조: 2.062)

이제 우리는 위의 인용문으로부터 『논고』에서는 R과 G와 같은 색깔 명제들이 요소 명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요소 명제의 논리적 곱은 모순일 수 없는데, R & G는 모순이기 때문이다.¹⁴⁾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견해」에서 『논고』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제기한다. 먼저 R & G의 진리표가 어떻게 작성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 예컨대 그 진리표는 다음과 같은가?

(1)	R	G	R & G
T	T		T
F	T		F
T	F		F
F	F		F

비트겐슈타인은 이 진리표가 “무의미한 것(nonsense)”이라고 말하면서 다음을 제시한다:

(2)	R	G	R & G
F	T		F
T	F		F
F	F		F

13) 참고: Dales & Oliveri(1998), p.15. “독립성”的 개념에 대한 더 느슨한 정의도 있다. 참고: Marciszewski(1981), p.152.

14) 염밀하게 말하면, 인용문으로부터 따라나오는 것은 R 또는 G가 요소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R과 G가 동일한 명제 형식을 지닐 것이라는 점은 자연스럽다.(참조: PR, p.109) 그렇게 되면 R과 G는 둘 다 요소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 따라나온다.

즉 진리표 (1)에서 첫 번째 가로줄은 사라져버린다. 왜냐하면 R과 G가 동시에 참인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리표 (1)이 무의미한 까닭은 “맨 윗줄 “T T F”가 실제 가능성들의 논리적 다수성(multiplicity)보다도 더 큰 논리적 다수성을 그 명제에 주기 때문”(RLF, p.35)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표 (1)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달리 표현한다. 즉 “한 점이 동시에 빨갛고 푸르다”와 같은 명제에서의 “그리고”는 진리함수 논리의 “그리고”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요컨대, 이 명제에는 진리함수 논리의 “연언”이 존재하지 않는다.(RLF, p.35; WVC, p.74)¹⁵⁾

비록 R & G의 “&”가 진리함수 논리의 “&”가 아닐지라도, 진리표 (2)는 진리함수 논리에서의 “모순”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 즉 이 진리표는 가장 오른쪽 열에 모두 F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트겐슈타인은 “배제”라는 새로운 용어를 끌어들인다.

분석 불가능한 정도 전술들의 상호 배제는 내가 수 년 전에 발표했던 나의 견해, 즉 원자 명제들이 서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요청했던 (necessitated) 견해와 모순된다. 여기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모순되다”가 아니라 “배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개념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원자 명제들은, 비록 그것들이 모순될 수 없지만, 서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RLF, p.33)

여러 학자들은 바로 이 인용문으로부터 비트겐슈타인이 「견해」에서 색깔 명제를 요소 명제로 간주했다고 주장한다.¹⁶⁾ 그러나 과연 이러한 주장은 옳은가?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좀 더

15)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무의미한 것으로 지적한 것은 진리표 (1)이지, 명제 R & G가 아니다. 오스틴(Austin, 1986, p.209)과 이승종(2002, 72쪽)은 이를 놓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철학적 고찰』에서도 명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참조: PR, p.107)

16) Kenny(1973), p.105; Malcolm(1986), p.214; 김학근(1983), 102쪽; 이승종(2002), 77쪽, 80쪽; 이희열(2003), 155쪽, 등; Austin(1986)과 이건표(154~164쪽)는 명시적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지만, 앞 뒤 맥락을 살펴보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박병철(1998)(더 나아가 J. Hintikka)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의 입장은 다소 이질적일 수 있으며 그래서 자못 홍미롭다. 왜냐하면 그는 『논고』의 대상을 러셀의 감각자료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Park, B.(1998), pp.73~80) 한편, 색깔 명제가 요소 명제인지 여부를 묻는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거부하는 입장도 있다.(참고: Rhee(1970), p.16~20)

92 ■ 논리연구 제7집 제2호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왜 비트겐슈타인이 R & G의 “그리고”와 진리함수 논리의 “그리고”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예컨대 R & G의 진리표가 3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가?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외견상 3 줄로 이루어진 진리함수 논리의 진리표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p와 q가 각각 요소 명제라고 가정할 때, 다음의 진리표가 그러하다:

(3)	p & q	$\sim p$	$[p \& q] \& \sim p$
	T	F	F
	F	T	F
	F	F	F

이 진리표에서도 p & q 와 $\sim p$ 가 둘 다 동시에 참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줄(즉, 각각 T, T인 경우)은 사라진다. 그런데 위의 진리표는 실제로는 3 줄이 아니라 4 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실제** 진리표는 다음과 같다:

(4)	p	q	p & q	$\sim p$	$[p \& q] \& \sim p$
	T	T	T	F	F
	T	F	F	F	F
	F	T	F	T	F
	F	F	F	T	F

따라서 R & G의 진리표가 외견상 3 줄이기 때문에 그것의 “&”와 진리함수 논리의 “&”가 판이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예컨대, R과 G가 각각 요소 명제라고 가정하자. 그렇게 되면 R & G의 진리표는 4 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에서 보듯이, 이 진리표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R과 G를 각각 요소 명제라고 간주했는가?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분석”이 “진리함수적 분석”과 “이름-연쇄적 분석”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논리상

향이 없는 명제에로 나아가며, 후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결합관계에 놓여 있는 이름들”(TLP, 4.221)의 연쇄로 나아간다. 비트겐슈타인이 R과 같은 색깔 명제를 요소 명제로 간주했다는 주장은,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분석이 모두 수행되었다고 그가 간주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위의 인용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색깔 명제를 “분석 불가능한 정도 진술”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진리함수적 분석”을 염두에 두고 논의했을 뿐, “이름-연쇄적 분석”은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이 점은 위의 인용문 바로 앞에서 논의된 것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혹자는---나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하나의 성질의 정도를 표현하는 진술은 단일한 양의 진술들과 또 완전하게 만드는 보충 진술의 논리적 곱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가 “거기에는 1 페니, 1 실링, 열쇠 두 개가 있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나의 호주머니의 내용물들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에서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그 기술을 완전하게 만드는 보충 진술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도 진술의 분석으로서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령, 밝음의 단위를 b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그리고 E(b)가 실제(entity) E가 이 밝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진술이라면, 명제 E(2b)는 E가 두 개의 밝음의 정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논리 곱 E(b) & E(b)로 분석되어야 할텐데, 그러나 이는 E(b)와 같기 때문이다. 반면에, 만일 우리가 단위들을 구분하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E(2b) = E(b') & E(b'')라고 쓴다면, 우리는 두 가지 상이한 밝음의 단위들을 가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만일 어떤 한 실재가 한 단위를 소유한다면, 두 가지---b' 또는 b''---중 어느 것이 그 단위이냐 하는 물음이 제기될 것이며, 이는 명백하게도 불합리한 것이다.(RLF, p.32-33)

한편, 「견해」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다른 맥락에서 “이름-연쇄적 분석”도 문제삼고 있다. 예컨대 그는 가로가 x 좌표의 구간 [6, 9]이고 세로가 y 좌표의 구간 [3, 8]인 반점에 대해서 그것이 빨갛다는 명제를 “[6-9, 3-8] R”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R”을 “분석되지 않은 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분석된 것이 더 완전하게 분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LF, p.32) 또한 그는 우리의 시야의 어떤 장소

에서 어떤 시간에 색깔 R 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명제를 “ $R P T$ ”라고 쓰면서 “그러한 진술이 어떻게 더 분석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RLF, p.33) 뿐만 아니라 그는 「견해」를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끝맺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규칙들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현상의 최종적인 분석에 실제로 도달하기까지는 설정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 달성되지 않은 것이다”.(RLF, p.35)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견해」에서 R 과 같은 색깔 명제를 요소 명제로 간주했다는 주장을 명백한 오류이거나 오도적인 것이며, 문제를 극히 단순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현상의 궁극적 분석”은 달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R 을 요소 명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견해」에서 비트겐슈타인은 R 이 요소 명제일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즉 “완전한 분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명제는 요소 명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¹⁷⁾ 그런데 바로 그 “완전한 분석”은 달성되지 않았다. 특히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이름-연쇄적 분석”이다. 「견해」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색깔명제 R 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진리함수적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이제 문제는 R 에 대한 이름-연쇄적 분석이다. 만일 R 이 이름-연쇄적 분석을 통과한 것이라면 R 은 요소 명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R 은 요소명제의 한 축약에 불과하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정리해 보자. 위의 인용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R 과 같은 색깔 명제(또는 정도 진술)가 어떤 한 방식으로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라고, 그리하여 진리함수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그러한 생각이 오류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색깔 명제에 대한 진리함수적 분석은 가능하지 않으며, R 과 G 와 같은 명제는 요소 명제이거나 요소 명제의 축약이다. 그러나 만일 R 과 G 가 요소 명제라면 이는 무의미한 진리표 (1)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3 줄로 이루어진 진리표 (2)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논고』의 진리함수 논리와 정면으로 상충한다. 왜냐하면 R 과 G 가 요소 명제라면 그것들은 서로 독립이고 R & G 의 진리표는 4 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R 과 G 가 요

17) 참조: PG, 210-2.

소 명제의 축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R과 G가 각각 이 름-연쇄적 분석이 주어져서 요소 명제 R' 과 G' 으로 탈바꿈된다 하더라도, 3 줄 진리표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와 같은 3 줄 진리 표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제 그는 요소 명제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논 고』의 근본 전제를 포기해야 한다. 요컨대, 만일 R과 G가 요소 명제이거나 요소 명제의 축약이라면, $R \& G$ 는 3 줄 진리표가 되고, 이는 『논고』의 진리 함수 이론과 정면으로 위배되며, 특히 요소 명제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그렇다면 되돌아갈 방도는 없는가? 즉 『논고』에서와 같이, 색깔 명제들은 요소 명제들이 아니고 또 그것들의 연언은 모순이라는 주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아마도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R \& G$ 가 (3)과 (4)와 같은 진리표를 지닌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R \& G$ 는 외견상 3 줄 진리표를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 줄이나 2^n 줄 진리표를 지닌다. 그런데 R 과 G 는 진리함수적 분석이 가능하고 $R \& G$ 는 모순이므로, R 과 G 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어떤 요소 명제 p 에 대해서, R 이 p 를 하나의 연언지로 포함하고 있다면, G 는 $\sim p$ 를 하나의 연언지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 역이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는 명제 Y , 즉 “ P 는 노랗다”를 문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Y 또한 R 이나 G 와 연언으로 연결될 때 모순을 산출해야 한다. 이 때 Y 에 포함되는, 문제가 되는 연언지는 최소한 p 나 $\sim p$ 일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것, 가령 s 나 $\sim s$ 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R 과 G 는 둘 다 $\sim s$ 나 s 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R 과 같은 색깔 명제는 대단히 많은 요소 명제들 또는 그 부정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예컨대 R 과 같은 명제가 참인지 여부를 판단 내리기 위해서 모든 색깔을 염두에 두거나 또는 모든 색깔들과 관련된 것을 지니고 있는 거대한 진리표를 그려야 하는가? 만일 그 진리표가 무한하게 큰 것이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이 연필은 2 cm이다”와 같은 명제[정도진술]의 진리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한한 진리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6. 땃는 말

나는 지금까지 『논고』의 여러 근본 전제들의 논박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나는 그 근본 전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한 부류는 직접적 논박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서, 『논고』와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나 패러다임에 서게 될 때 비로소 효과적 비판이 가능하게 될 근본 전제들과 주장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전자에 비해 어떤 직접적인 논박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근본 전제였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나는 『논고』에서 정의에 해당되는 것, 모호한 개념인 “완전한 분석”과 관련된 것, 그리고 유아론과 관련된 것들을 제시하였다.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나는 요소 명제들의 상호 독립성을 들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이와 관련된 근본 전제들을 치밀하게 다룸으로써,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론들을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보다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비트겐슈타인이 실제로 『논고』를 포기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묘사해 보겠다. 그 이상 정후는 요소 명제들의 상호독립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색깔 명제와 같은 “정도 진술”들이 어떤 한 방식으로 진리함수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견해」에 이르러 그러한 방식의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R과 G와 같은 색깔 명제가 요소 명제일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더구나 그는 R & G에 대해서는 (2)와 같은 진리표---그것을 “진리표”라고 부른다면---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모순”이라는 용어 대신에 “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왜 하필 R & G가 결정적인가? 왜냐하면 R과 같은 명제는 전형적인 뜻 있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현상학적이거나 현상론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 & G는 뜻이 있거나 “뜻을 결여하는” 명제이어야 하며 『논고』의 진리함수 이론에 반드시 들어맞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2)와 같은 진리표를 받아들인다면, R & G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하여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또는 『논고』의 의미에서 R & G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견해」 당시의 비트겐슈타인의 고뇌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즉 진리함수 논리와 부합하지 않는 무의미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화용론”的 근본 전제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색깔 문제, 넓게는 정도 진술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다. R & G가 무의미하지 않으며 (2)와 같은 진리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진리함수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논리가 절대적이지 않다거나 그 적용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2)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함수 논리와는 아주 다른, 또는 보다 더 넓은 구문체계, 또는 “문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견해」에서 “완전한 분석”的 개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요소 문제”的 개념은 포기되지 않았다. 대신에 진리표 (2)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선고와 함께, 요소 문제들의 상호 독립성과 진리함수 논리의 절대성은 포기된다.¹⁸⁾ 1930년 1월 2일(「견해」로부터 대략 5개월 후) 진리표 (2)를 둘러싼 갈등은 정리되고, 비트겐슈타인은 비엔나 학파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요소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지녔었는데, 그 중 하나는 나에게 옳은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다른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첫 번째 가정은 다음과 같다: 문제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아니다’, ‘그리고’, ‘또는’, 그리고 ‘만일’은 대상들을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 상황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대상들과

18) 「논고」와 「견해」를 관련짓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더 엄밀하게 말할 수 있다: “연결사”가 없는 문제들에로 나아가는 분석을 “1차적 분석”이라고 부르고, 요소 문제를 이루는 궁극적 요소들의 연쇄로 나아가는 분석을 “2차적 분석”이라고 부르자. 「논고」에서는 “진리함수적 분석”이 1차적 분석으로, 그리고 “이름-연쇄적 분석”이 2차적 분석으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견해」에서 R & G가 무의미하지 않으며 또 진리표 (2)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비-진리함수적 분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R & G의 “&”는 진리함수적 연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요소 문제의 형식 안에 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은 2차적 분석으로서 “이름-연쇄적 분석”과는 다른 방식의 분석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논고」에서 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 문제의 상호 독립성이 포기됨과 동시에 1차적 분석으로서 진리함수적 분석의 절대성도 포기된다. 또한 「견해」의 2차적 분석은 분명히 「논고」의 그것과는 이질적이거나 상충한다.(참고: TLP, 4.128, 5.453) 바로 그 만큼 「논고」의 “완전한 분석”的 개념은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그 개념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것은 열린 프로그램의 근본 전제나 정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연결되는 명제들에 결국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둘째로 나는 요소 명제들이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지녔었다. (...) 이러한 견해를 견지함에 있어서 나는 잘못을 범했으며, 왜 그것이 그르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WVC, pp.73~4)

그 겨울에 요소 명제는 “상호 독립성”이라는 사지가 완전히 잘려나간다. 『논고』라는 건물은 진리함수 이론이라는 대들보를 잊은 채 양상한 골조를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요소 명제는 숨이 붙어 있었다. 요소 명제의 성립 근거인 “완전한 분석”이 포기되지 않는 한, 요소 명제는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생명은 오래 가지 않았다. 1년 후 1931년 12월 9일, 비트겐슈타인은 비엔나 학파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이제 요소 명제의 개념을 포기했음을 알린다.

독단적 설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결점은 그 설명이, 말하자면, 오만하다(arrogant)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그 설명의 가장 나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잘못이 있으며, 또 이는 훨씬 더 위험하고 내 책 전체에도 퍼져 있는데, 후일에 이르러 대답들이 발견될 그런 물음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비록 어떤 결과가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는 어떤 방법이 존재한다고 간주된다. 그리하여 나는 예컨대, 요소 명제들을 발견하는 것이 논리적 분석의 임무라고 나는 믿었다. 우리는 요소 명제들의 형식을 규명할 수 없다고 나는 썼는데, 이는 역시 아주 옳았다.[TLP 5.55] 여기에는 어쨌든 가설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 이 물음들에 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카르납이 하듯이, 요소 명제들이 두 자리 관계들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함으로써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나에게는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소 명제들은 후일에 이르러 규명될(specified) 수 있다고 생각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나는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나의 책의 원고에 다음과 같이 썼다(이는 『논고』에는 인쇄되지 않았다): 철학적 물음들에 대한 대답들은 결코 놀라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철학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이를 충분히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이를 위반하고 말았다.(WVC, p.182)

“완전한 분석”(“논리적 분석”)의 개념과 요소 명제의 개념이 포기됨으로써 비로소 『논고』는 포기된다. 왜냐하면 이와 함께 『논고』의 구문론, 존

재론, 그리고 그림 이론이 모두 포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개념의 포기는 어떤 직접적 논박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는 오히려『논고』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패러다임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그는 브라우어의 강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리함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논리학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신은 위의 인용문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모든 것이 드러나 거기 놓여 있다”(PI, 126절)는 것,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다”(PI, 129절, 415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작업은『논고』라는 폐허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으로 시작되었다.『논고』의 모든 근본 전제들은 하나 하나 치열하게 반성되고 비판된다. 그 예들을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중·후기 저작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 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논문은 이미 ‘제16회 한국철학자대회 2003’에서 발표된 것이다(『탈민족주의 시대의 민족담론』, 제3권, 21-40쪽). 또한 이 논문의 논평자는 박병철 교수였으며, 그의 논평문(이하, 박병철(2003)으로 약칭함)은 같은 책, 41-47쪽에 실려 있다. 당시 나는 박 교수의 논평에 대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리고 현재의 나의 생각은 당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한 심사위원은 “그 논평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논평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이건 아니면 부정적인 응답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이 논문을 수정해야 할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그 논평에 대한 나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나는 박병철 교수가 지금도 그 당시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박병철(2003)의 핵심적인 비판들은 한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나에겐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빗나갔거나 오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록 박병철(2003)에서는 『논고』의 주요 개념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중기 철학과 관련해서(또는 『논고』의 포기 상황과 관련해서) 그가 거론하고 있는 “그림”, “요소명제”, “완전한 분석” 등의 개념이 과연 『논고』의 그것인지 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박병철(2003)의 비판은 한 가지를 제외하면 완전히 빗나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나는 유효하다고 보이는 그 한 가지 비판부터 논의하도록 하겠다. 박병철(2003)은 본 논문에서의 “구문론”이 『논고』의 구문론과 어떤 관계를 지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박병철(2003)은 양자가 동일하거나 상이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만일 같은 것이라면 발표자가 『논고』의 “구문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만일 다르다면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43-4쪽). 나의 답변은 물론 **상이하다는 것이다**. 『논고』에서 “구문론”이라는 표현은 6번 등장한다(3.325, 3.327, 3.33, 3.334, 3.344, 6.124). 그런데 이때 유의할 것은 그 표현이 **단독으로** 나오지 않으며, 항상 “**논리적 구문론**”이라는 표현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기호언어**의 사용을 규제하는 “**논리적 문법**”으로서의 “**논리적 구문론**”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며, 일반적인 의미의 “구문론”은 거론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나는 이 논문의 2절에서 밝혔듯이, 『논고』라는 이론체계의 “부분이론”으로서 “구문론”을 언급하고 있으며, 결코 그것을 “**논리적 구문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논고』의 포기 상황과 관련해서 박병철(2003)에서 거론되는 주요 개념들---그림, 요소명제, 완전한 분석 등---은 결코 『논고』의 개념들이 아니다. 예컨대, “그림”과 “그림이론”에 대해서 박병철(2003)은 “그림이론은 완전히 포기되었다기보다는 그 일부 요소는 포기되고 일부 요소는 수정되거나 살아남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놀랍게도 “중기 저작에 여전히 그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특히 『청색책』 36-7쪽에서 “표상하는 바와 전혀 유사성이 없는 문장을 하나의 그림으로 상정”(강조는 필자)하고 있는 경우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인용

문(45쪽 참조)에서의 “그림”이 『논고』의 그림인가? 도대체 『논고』에서 한 명제는 왜 그림이며, 더구나 왜 논리적 그림인가? 왜냐하면 그려지는 것과 “**논리적 형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병철(2003)이 인용하고 있는 위의 언급에서의 “그림”은 그려지는 것과 “전혀 유사성이 없는” (따라서 『논고』의 어법대로라면, 논리적 형식조차 공유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결코 『논고』의 그림이 아니다. 아쉽게도 박병철(2003)은 『논고』에서의 엄밀한 개념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나, 아니라면 『논고』의 엄밀한 개념들과 『논고』 포기 이후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하는 동일한 용어들을 혼동함으로써 일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 요컨대 『논고』 포기 이후에도 비트겐슈타인이 “그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논고』의 “그림 이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소박한 생각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은 “완전한 분석”과 “요소명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논평자가 보기에 발표자는 ‘완전한 분석’과 요소명제의 관련성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밀접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이 완전한 분석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고』의 시기와 다른 의미에서 완전한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분석의 개념(명제의 분석)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다”(45쪽)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중기 저작에서 “완전한 분석”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런데 3절에서 주장된 것처럼, “완전한 분석”이 존재한다는 것과 “요소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논고』에서는 논리적으로 동치이다(그리고 박 교수는 왜 이것이 “지나치게 밀접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는 전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논고』의 의미에서 1931년 12월 9일 이후, 도대체 어디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비판을 하기 위한 논의의 대상으로 거론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적극적 주장을 하기 위해 “완전한 분석”과 “요소명제”를 논의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한 그런 경우는 없다(또한 박 교수가 제시한 것(45쪽)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만일 박병철 교수가 그런 경우를 단 하나만이라도 제시할 수 있다면, 그의 비판은 유효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는 당연히 나의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박 교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은 대단히 신중하고 정직한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내가 “이름-연쇄적 분석”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진리함수적 분석”에 의해서는 요소명제의 **축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요소명제에 도달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박병철(2003)은 “진리함수적 결합사를 지니지 않는 명제들로 분석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름들의 연쇄인 요소명제에 도달하는 것처럼”(44쪽)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견해」에서 색깔명제를 오로지 요소명제로 간주했다고 보는 견해로서 본 논문의 주요 비판 대상이다. 나는 아직도 박 교수가 그러한 설득력 없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박병철(2003)은 비트겐슈타인의 “중기 저작 곳곳에 그림 아이디어가 등장”(46쪽)하며, 또한 “설사 『논고』가 포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논고』의 핵심적인 생각 중의 하나인 그림 아이디어, 또는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는 결코 『논고』와 더불어 포기되지 않았다”(47쪽)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흥미롭게도 “비트겐슈타인이 요소명제의 독립성은 포기했는지 몰라도 (요소)명제의 그림적 성격마저 포함했다는 증거는 없다”(46쪽)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앞의 언급을 보면 박병철(2003)은 비트겐슈타인이 “요소명제”的 개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왜냐하면 요소명제의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논고』의 의미에서 “대상”的 개념도 인정해야 될 것이며, 이는 전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과연 그러한 그림 아이디어가 『논고』 고유의 핵심적인 생각인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논고』 고유의 핵심적인 것은 “**논리적 형식**”을 지니는 “그림”이다. 그저 그림이 아니다! 도대체 언어가 사실을 묘사하고 기술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상식일 뿐이며 『논고』 고유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언어와 세계의 관계”라는 것

은 아마도 철학자라면 으레 떠올리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교수의 위의 언급과 생각은 대단히 공허할 뿐만 아니라 오도적이다. 문제는『논고』 고유의 엄밀한 개념과 생각을 파악하는 일이다. 특히 『논고』와 『철학적 탐구』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논고』의 엄밀한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단히 불행하게도, 박병철(2003)의 논평은 비트겐슈타인의『논고』와『논고』포기 이후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그 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참고 문헌

- 김학근(1983),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론”, 분석철학연구회 편,『비트겐슈타인의 이해』, 서광사, 1983, 85-128쪽.
- 박정일(2003a),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철학아카데미 편,『아카필로』, 제8호, 2003년 여름, 176-194쪽.
- _____ (2003b), “박병철 교수의『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현상학적 측면』”, 한국논리학회,『논리연구』, 제6집 제2호, 2003, 161-172쪽.
- 이건표(1992),『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 마음』, 자유사상사.
- 이승종(2002),『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문학과지성사.
- 이희열(2003), “비트겐슈타인의 색깔 배타성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회편,『철학』, 제74집, 147-170쪽.
- Anscombe, G. E. M.(1959),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London.
- Austin, J.(1986), “Wittgenstein's Solutions to the Color Exclusion Problem” in Shanker(1986), pp.207-212.
- Dales, H. G. & Oliveri, G.(1998), ed. *Truth in Mathematics*, Clarendon Press, Oxford.
- Kenny, A.(1973), *Wittgenstein*, Penguin Books.

- Malcolm, N.(1986a), *Wittgenstein: Nothing is Hidden*, Basil Blackwell.
- _____, "Wittgenstein's *Philosophische Bemerkungen*", in Shanker(1986), pp.213-221.
- Marciszewski, W.(1981), (ed.) *Dictionary of Logic*,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Park, B.(1998), [박병철(1998)], *Phenomenological Aspects of Wittgenstein's Philosophy*,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 Rhees, R.(1970), *Discussions of Wittgenstei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Shanker, S. G.(1986), ed. *Ludwig Wittgenstein: Critical Assessments*, vol.1, Croom Helm.
- Wittgenstein, L., (TLP),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German-English, English trans. by C. K. Ogden and F. P. Ramse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22; corrected reprint, 1933; reprint (with index) by Max Black, 1955. 『논리-철학논고』, 이영철 옮김, 천지, 1991.
- _____, (NB), *Notebooks 1914-1916*, ed. by G. H. von Wright and G. E. M. Anscombe with an English trans. by G. E. M. Anscombe, Harper Torchbooks, New York and Evanston, 1961.
- _____, (NL), "Notes on Logic: September 1913", in NB, pp. 93-106.
- _____, (PI),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53.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서광사, 1994.
- _____, (PG), *Philosophical Grammar*, ed. Rush Rhees, Basil Blackwell, 1974.
- _____, (PR), *Philosophical Remarks*, ed. R. Rhees, trans., R. Hargreaves and R. White, Basil Blackwell, 1975.
- _____, (WVC), *Wittgenstein and the Vienna Circle*, ed. by Brian McGuinness, Basil Blackwell, 1979.